사 업 보 고 서

2002 년 한-아세안문화계인사교류사업

한국 문화유산 전문가 아세안국가 방문

2002 년 12 월 15 일(일) - 23 일(월) /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캄보디아

I. 사업개요
II. 조별활동보고
III. 평가 및 제안

* 별첨자료:
1. 일정표

I. 사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가. 1998 년에 체결된 한국과 아세안간의 협정에 기초, 1999 년 이래로 실시되어온 "한-아세안 문화계인사 교류사업" 일환으로 한국과 아세안간 민간차원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실시되는 이 문화교류사업은 문화계 인사들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문화간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의 파트너로써 신뢰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둠.

나. 본 사업의 추진기관인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99 년이래 21 세기 문화의 다양성, 공연예술: 전통과 현대, 영화와 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아세안 국가 문화인의 방한사업과 한국문화인의 아세안 국가 방문사업을 실시하였음.

다. 유엔이 정한 문화유산의 해인 2002 년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한국의 문화유산 분야 전문가들이 아세안 4 개국(베트남, 참보디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방문을 통해 이들 국가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임. 아울러 이번 방문을 기초로, 2003 년 5 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아세안 문화유산 전문가 방한사업 계획을 구성할 예정임.

2. 사업명:

한-아세안 문화계인사 교류사업: 한국문화유산 전문가 아세안 방문

ASEAN-ROK Cultural Leadership Exchange Programme

Korean Participants to ASEAN Member States: CULTURAL HERITAGE

3. 개최기관

- 주최 : ASEAN(동남아국가연합), 외교통상부
- 주관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4. 방문기간: 2002 년 12 월 15 일(일) – 23 일(월)

5. 방문국

- A 조: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16 일-23 일)

- B 조: 베트남, 캄보디아 (15 일-23 일)

6. 참가자 : 16 명

◆ A 조 (8 명):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직책	성명	소속	지위	전문분야	성별
단장	한명희	서울 시립대	교수	음악이론	남
	김광식	ICOMOS 한국위원회	회원	문화유산정책	남
	김원기	문화재청	사무관	문화유산행정	남
	박상미	한국외국어대	교수	문화인류학	여
	정종수	국립민속박물관	과장	민속연구	남
	최선복	강릉시청	학예연구사	지역문화재행정	남
	이희섭	외교부, 동남아 1 과	서기관	지역외교	남
	박성용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차장	국제교류	남

◆ B 조 (8 명): 베트남, 캄보디아

직책	이름	소속	지위	분야	성별
단장	김병모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문화유산교육	남
	김홍남	이화여대	교수	미술사	여
	김홍영	청주시	학예사	지역문화재행정	남
	서만철	공주대학교	교수	문화재보존	남
	이영훈	중앙박물관	부장	박물관행정, 고고학	남
	이춘근	문화재청	과장	문화유산행정	남
	조대식	외교부, 문화협력과	과장	문화외교	남
	허 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장	국제교류	남

7. 주요활동

-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 논의
- 유·무형 및 세계유산의 관광 개발 및 교육 방안 협의
- 문화유산 전문가 상호교류 및 협력 방안 협의
- 문화유산 및 역사유적지, 관련기관 방문 및 민속공연 관람

8. 세부일정: * 별첨 1 참조

II. 조별 활동보고

➢ A 조-말레이시아

1. 활동개요

- 문화유산 전문가 및 박물관 관계자 토론회: 문화유산 현황 및 교류방안 논의
- 기관/단체 방문: 국립역사박물관, 국립박물관, 쿠알라룸푸르 시내 유적지 방문, 말라카의 독립기념관 및 역사도시 탐방 등
- 유적지 시찰/문화행사 참관: 셀랑거주(州) 부키트 멜라와티의 역사 요새(성) 관람, 이슬람 소년들의 할레의식 참관
- 기타: 쿠안탄 참풍 지역의 반딧불 농장 방문, 리셉션 등

2. 주요내용

1) 국립역사박물관 방문

가. 일시/장소: 2002 년 12 월 17 일 08:30-10:00 / 쿠알라룸푸르,잘란 라자

나. 개관: 1996 년 4 월

다. 건물 유래: 1888 년 쿠알라룸푸르시의 최초 은행으로 지여진 건물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은행으로 사용되기도 했음. 1991 년 넘겨받아 역사박물관으로 개조함. 이 건물은 벽돌과 나무로 지어졌는데 주위의 빌딩을 비롯한 술탄사원과 쿠알라룸푸르 기념도서관 등과도 조화를 잘 이루고 있음.

라. 전시내용

- 전시구성: 2 개층 전시실에 말레이시아 선사시대부터 현정부 구성에 이르기까지 총 20 개 주제로 나누어 전시함. 전체 건물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전시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음

마. 관람객 현황

- 2001 년 박물관 관람객은 총 113,920 명으로 그 중 내국인이 29,247 명, 외국인 82,618 명으로 외국인 비율이 월등히 높음.

바. 기타 : 간단한 브리핑이나 회의를 할 수 있는 접견실을 1 층에 두어 우리나라처럼 관장실이나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고도 접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임. 또 한 브리핑이나 안내가 끝나면 반드시 간단한 전통과자와 차를 준비하여 차를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함.

2) 국립박물관 방문 (The Department of Museums and Antiquities)

가. 일시/장소: 2002 년 12 월 17 일 11:30-14:30 / 쿠알라룸푸르

나. 개관: 1993 년

다. 박물관 성격: 민속박물관, 민족박물관, 자연사박물관을 혼합한 일종의 종합박물관임.

라. 건물구성: 총 3 층으로 주 사무동과 갤러리(전시실)가 분리됨, 관람객들은 1 층을 거치지 않고 바로 2 층 전시실로 들어가도록 설계됨.

- 1 층: 사무실 및 박물관 숍; 토산품 및 안내 도서 등 관련책자 판매
- 2 층: 전시실; 크게 2 개 분야로 전시구성
- 3 층: 전시실; 크게 2 개 분야로 전시구성

마. 전시내용

- 2 층: 말레이시아의 역사와 풍속, 중국, 인도 등 풍속전시, 통과의례
- 3 층: 각종 민속악기, 도자기, 자연생태물 등

바. 기타 : 역사박물관처럼 간단한 브리핑이나 회의를 할 수 있는 접견실을 1 층에 두어 우리나라처럼 관장실이나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고도 접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임. 또 브리핑이나 안내가 끝나면 반드시 간단한 전통과자와 차를 준비하여 차를 마시면서 담화할 수 있도록 함.

3) 셀랑거州 부키트 멜라와티의 쿠알라 요새(성) 방문

가. 일시/장소: 2002 년 12 월 17 일, 1600-18:00 / 셀랑거주 쿠알라

나. 유적지 개요

- 쿠알라 언덕에 위치한 요새는 주위를 돌로 쌓아 외적의 침입을 막도록 했으며, 강쪽으로 여러 대의 대포를 설치하여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토록 함. 쿠알라 요새는 이 지역의 통치자

3 명 중 2 대 통치자인 아브라힘왕 (Sultan Ibrahim;1770~1826)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참고로 1 대 통치자는 살라후딘왕 (Sultan Salahddin; 1745~1770), 3 대 통치자는 무하메드왕((Sultan Muhammad; 1826~1857)로, 이들 세 왕들은 쿠알라 셀랑거 언덕에 묻혔음.

다. 관리

- 말레이시아는 외침이 잦아 우리 나라처럼 오래된 유적들이 많지 않아서 인지 불과 100 년에서 200 년 정도 되는 근대적인 유적지로 관리는 비교적 잘되고 있음. 현재 요새 내부를 유적을 확인하기 부분적 트렌치를 넣어 놓은 상태이다. 이곳 쿠알라 요새에서 자동차로 10 여분 거리에 이와 같은 요새 (부킷트 란종 케라마트)가 있는데 잘 정비되어 있음.

4) 셀랑거州 참퓽 쿠란의 반딧불 생태 체험 관광

가. 일시/장소: 2002 년 12 월 17 일, 20:30-21:30 / 셀랑거주 참퓽 쿠란

나. 반딧불 생태 체혐 개요

-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자동차로 1 시간 30 여분 거리에 있는 강변지역으로, 민간이 개발한 자연생태 관광지임. 이곳 자연 생태 체험 관광은 밝은 낮에는 반딧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야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캄캄한 밤중에 무동력 보트를 타고 강을 20 여분 거슬러 올라가면서 반딧불을 보는 아주 단순한 생태 체험이지만, 오로지 적막과 어둠 속에서 사공의 노 젓는 소리만 간간이 들리는 밀림의 강을 따라 올라가노라면 무서움과 함께 신비감에 휩싸이면서 강 양쪽 숲 속의 나무에서 수천 수만 마리의 반딧불이 마치 크리스마스트리의 불빛처럼 반짝이는 모습은 가히 장관이라 할 수 있음.
- 반딧불은 오염이 안된 청정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오염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도시인들에게 의미있는 문화 관광 체험임. 단순한 반딧불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생태 체험 관광지로 개발한 아이디어가 신선함. 이곳의 자연 생태 문화 체험 관광은 개발만을 능사로 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음.

5) 말라카의 역사도시 탐방

가. 일시/장소: 2002 년 12 월 18 일 – 19 일 / 말라카

나. 위치 및 특징

- 말라카는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자동차로 2 시간 거리 해안 관광도시로 현대적인 도시와 19 세기에 형성된 역사적 도시가 공존해 현대와 과거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으며, 말라카市 중앙을 관통하는 강이 있어 이를 따라 관광 유람선이 운행되고 있음.
- 말라카는 옛날 동서를 잇는 중요한 항구로서 번영하였으며, 1956 년 2 월 20 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음. 말라카 시내에는 포루투칼의 점령시 1512 년 시 중앙 언덕에 세운 산티아고 교회를 비롯해 최초로 동남아시아에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기 위해 이곳에 1545 년 온 세인트 프란시스 신부를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인들이 세운 교회 (현재 말라카박물관으로 쓰고 있음), 1886 년 시민들이 낸 성금으로 세운 시계탑 (말라카의 상징인 적색을 써서 건축함) 등 100 년 이상된 건물들이 즐비해 말라카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음. 말라카 시내에는 말라카 문화박물관을 비롯해 8 개의 크고 작은 박물관을 비롯해 많은 문화유산이 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라카의 역사도시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신청을 준비중임.

다. 유적지 및 문화재 개요

- **국립 말라카 독립기념관**
  a. 위치: 말라카, 반다 힐리르
  b. 건물의 특징 및 성격: 이 독립기념관은 1911 년 지어졌으며, 말라카 주정부에 의해 1985 년 8 월 31 일 독립기념관으로 개관되었음. 현재 관리와 운영은 국립 말레이시아 기록보존소에서 하고 있음.
  c. 전시내용: 전시는 총 14 개 주제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으며, 내용은 외세에 대항해 싸우는 모습, 독립관련 자료, 술탄지배시대에 대해 사진, 지도, 그림, 국기, 인쇄물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여기에 1948 년부터 1960 년 비상사태 기간동안 국가 수반이 사용하였던 무장 자동차와 말라카 리무진을 마당에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흥미를 더해 줌.
- **산티아고 교회**
  a. 위치: 말라카시 중앙 언덕

b. 건물의 특징: 말라카 독립기념관 옆 언덕에 위치한 이 교회는 1512 년 포르투갈 점령 당시 지어졌음. 아고몬의 성지로도 불리는 이 곳은 한 때 대단한 요새였으나, 지금은 성문의 잔해만 남아 있음. 교회 벽에는 총격 자국이 남아있으며, 교회 내부 지하에는 당시 유명한 사람과 많은 군인들이 매장되어 있음. 지금도 요새처럼 되어 있는 이 교회를 보기 위해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음.

➢ **말라카 역사도시거리**

a. 위치: 말라카시

b. 특징: 말라카는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곳으로, 유서깊은 역사적 건물들을 비롯해 100 년 이상된 건물들이 시가를 이루고 있음. 거리에는 수많은 문화유산을 비롯해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삼륜 자전거가 시내를 질주하는 모습은 매우 이색적인 이 역사도시는 살아 움직이는 박물관이라 할 수 있음.

➢ **말라카 역사도시 빌라 센토사 생활박물관**

a. 위치: 말라카시 강변

b. 전시 내용 및 특징: 20 세기 초에 지어진 민가를 생활박물관으로 운영

- 말레이시아 전통가옥 및 생활방식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말레이시아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관람은 미리 예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금요일에는 14:25-17:00 까지, 평일은 09:00-13:00, 14:00-17:00 까지 개방함.
- 관람료는 무료임. 미리 예약을 하면 말레이시아 전통차와 다과를 먹을 수 있음.

6) 셀랑거州 참풍 이슬람교도 할레 의식 견학

가. 일시/장소: 2002 년 12 월 18 일, 20:00-:21:30 / 셀랑거주

나. 명칭: 이슬람 소년 할레의식

다. 내용

- 할레는 일종의 성년식으로 이 지역에서는 이슬람종교를 믿는 사람만이 하며, 의식은 이틀에 걸쳐 한다. 첫날은 저녁 8 시경에

시작되었다. 할례를 받기 위한 아이들 뿐만 인근 주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의식이 끝나면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데, 하나의 마을축제임.

- 할례는 남성의 성기 일부, 특히 포피를 의례적으로 절제 또는 절개하는 습속으로 여성의 음핵 또는 소음순(小陰脣)의 절개도 포함하나, 이곳에서는 7 세부터 12 세까지 소년들만 참여함.
- 할례가 이른바 '통과의례(通過儀禮)'로 존재하는 곳에서는 주로 사춘기 전이나 사춘기에 시행하고 있으나, 아랍 민족처럼 결혼 직전에 실시하는 곳도 있음. 고대 이집트에서는 BC 4000 년에 이미 존재했다고 하며, 남자는 보통 6~12 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함. 출생 직후에 행하는 민족도 있음.
- 할례의 목적에 대해서는 신들에 대한 피의 제물이라는 공희설(供犧說)과 그 밖에 고통을 견디는 수단, 결혼 준비, 성기의 신성화, 성교의 위험에 대한 상징적인지(認知), 위생상의 수단, 상징적인 거세(去勢), 혹은 생명을 준 신에게 남성을 보상하기 위해 바치는 희생이라고 하는 설 등 수많은 설이 존재함.

➢ A 조- 브루나이 다루살림

1. 활동개요

- 문화유산 전문가 및 박물관 관계자 토론회: 문화유산 현황 및 교류방안 논의
- 기관/단체 방문: 국립브루나이박물관, 왕궁박물관 방문, 선왕기념 회교사원방문, 예술품 수공예 훈련센터 방문
- 유적지 시찰/문화행사 참관: 브루나이의 오지 템브롱 지역 및 수상가옥촌 탐방
- 기타 : ASEAN-COCI 주최 오찬, 문화관광부 차관 만찬 등

2. 주요내용

1) 문화유산 보존·활용 방안 발표 및 토론

가. 일시: 2002 년 12 월 21 일 08:30-12:00

나. 장소: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 세리 베가완의 센터포인트 호텔 내 세미나룸

다. 참석자:

- 브루나이: Mr. HJ Sumadi, Mr. Eussoff Agaki, Mr. Haji Ismail Duraman 등 30 명
- 한국: 한명희, 김광식, 정종수, 김원기, 박성용, 박상미, 최선복, 이희섭, 박철민(브루나이 대사관)

라. 발표자 및 주제

➢ **Mr. HJ Sumadi / 브루나이의 무형문화재**

a. 브루나이의 풍속과 전통, 왕실의 풍습과 전통, 댄스, 음악, 놀이 등이 무형문화재로 전승되고 있음.

b. 브루나이 국민의 85%가 브루니아 말레이 계통으로, 말레이를 비롯해 인도,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음.

c. 국가철학은 Malay Islam Monarchy 임.

d. 국가 문화정책은 브루나이 말레이 문화에 기반을 두고, 그 근저는 말레이 이슬람 모나크임.

e. 브루나이의 무형문화재는 이슬람적인 종교행위에 바탕을 두고 왕실의 풍속과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음

- **Mr. Mr. Haji Ismail Duraman / Cultural Heritage Education(문화재교육)**
  a.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문화환경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르쳐야 함
  b. 문화재가 개발의 미명하에 파괴 되고 있음,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강력한 문화 보호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
  c. 문화전달방법으로서의 교육의 중요성
     - 교육은 다음 세대로 문화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
     - 교육과정에는 국가발전에 요구되는 것들이 포함되어야 함
     - 지역문화와 환경과 조화되는 교육과정의 필요성
  d. 도전받는 문화유산: 세계화(지구촌화), 도시화로 인한 전통 문화유산의 위기
     - 젊은 세대의 행동·사고방식·관념에 영향
     - 마약복용 등의 비생산적·비도덕적·비합법적 행위로 나타남
     - 방향성의 상실
  e. 교육의 역할
     - 무분별한 서구문명의 유입과 그의 절대적 수용으로 인한 전통문화유산 경시풍조
     - 전통가치와 관습, 국가적 문화유산의 보존에 있어 교육의 역할은 중대함
     - 교육적 관심은 유·무형 문화유산 중 무형문화유산에 집중되어 있음
     - 무형문화유산: 행위, 사고방식, 매너 등
  f. 잘 짜여진 교육과정의 필요성 :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실이 바르고 사회적으로도 문명화된 인간의 육성
  g. 정책의 이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 필요

h. 교육 종사자 외 부모·이웃·사회지도자·정부 관계자의 책임감
   - 가치, 특히 우리가 이슬람교로부터 수용하고 전승되어 온 문화와 관습을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데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음.
   - 그 방법적 측면에서, 어른들을 본받으라는 것보다는 환경보존이나 근처 식물과 동물보호, 숲 같은 자연자원의 보호 등과 같은 방법이 좀더 효과적일 수 있음.

* University of Brunei Darussalam (UBD)의 기여
   -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솔선수범을 통해 아이들의 모범이 될 만한 교육자 배출
   -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브루나이의 문화유산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형성되어 있음.

➢ **Mr. Eussoff Agaki / Cultural Heritage and Community: A General Observation (문화유산과 사회: 일반적 시각)**

a. 유산 보존 과정 : 신중한 계획이 필요
   - 문화유물에 대한 연구활동
   - 역사유적지·기념비·구조물의 정체성 확보
   - 수집대상물 혹은 물건과 관련된 유산의 획득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 제공

b. 박물관, 기록보관소, 역사박물관 등 정부기관의 중추적 역할

c. 문화파괴로부터 유산을 보호할 규제 마련

d. 유산 보존의 현실적 한계: 재정과 전문적 기술의 절대적 부족
   - 재정 부족 극복 방안: 사기업과의 공조
   - 기업주의 경제적 이익과 국가유산의 정체성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함
   - 재정단체와의 협력: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e. 전문적 기술 부족 극복방안 : 세계적 교수와 기술전문가 팀 구성

f. 문화유산의 소용에 대한 진지한 검토 필요성
   - 문화유산의 보존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를 경우
   - 문화유산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해야 함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국가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g. 특정 유산과 관련된 축제
h. 찾아가는 전시
i. 대중매체·교육과정·대중설명회 등을 통한 유물의 설명적 전시=> 각종 협회와 법인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음.

➢ **박 성용 / 한-아세안 협력사업 및 무형문화재 국제사업 소개**

a. ASEAN-COCI 와 브루나이 문화부의 환대에 사의 표명
b. 한-아세안 문화인 교류사업의 연혁과 주제별 사업에 대한 소개
   - 2004 년 아세안 문화유산 전문가 한국초청사업 계획 설명
c. 무형문화유산 분야 유네스코 국제사업 소개
   - 무형문화재 제도 보급 분야 "Living Human Treasures (LHT) System" 을 한국이 최초 제안
   - 한국-유네스코가 공동으로 1998-2001 간 4 차례에 걸쳐 "무형문화재 보존 워크숍" 실시
   - 무형문화유산 제도 보급사업 – 1996 년, 2002 년 LHT 지침서 연구사업 실시

* 무형유산제도 보급 지침서 개정본 및 한국의 문화재보호정책자료집 등 전달

➢ **김광식 / The system of recognition In the conservation of traditional performing**

a. 한국의 무형문화재 보호정책 소개
b. 중요무형문화재 관련 정책 설명
   - 문화재 보호법(제 24 조 1 항, 제 5 조 등)을 통한 무형문화재의 제도적 보호를 실시하고 있음
c.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범위 설명
   - 대상분야: 연극, 음악, 무용, 공예, 제례의식, 음식, 수공예 및 기타
   - 예·기능 보유자 지정 절차 및 현황(103 개 종목 173 명)
d. 인정제도, 보상과 의무

- 철저한 조사와 서면보고를 통해 중요 무형문화재 예.기능 보유자 및 전수자로 지정되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실시되고 사회적 명예도 함께 얻게 됨
-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른 의무로서 예□기능 보유자들은 매년 최소한 1 회 이상 대중을 위한 공연을 실시해야하며 전수자 육성의무가 부가됨
- 1999 년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해 1,626 명의 이수생과 59 명의 전수 장학생이 훈련을 받고 있음
- 이어서, 파워포인트 자료 설명을 통해,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선"과 후보 무형문화재 및 민속마을 보존에 대해 설명

➢ **한명희 / A Report on Contemporary Education of Korean Tradition Music**

a. 일제의 강점과 독립 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빠른 서구화의 과정은 한국 전통 음악의 창조적인 발전을 저해하였음. 일제의 문화 정책은 한국 문화를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평가를 절하하였으며, 일본이 물러간 후에도, 급속한 서구화의 과정 중에도, 이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것은 구시대적인 것이라 비판하는 경향이 강했음

b. 학교 교과 과정 중 국악은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피아노를 치는 것은 문화인의 생활 양식이라고 칭송받아졌던 반면에 전통 음악을 배우는 것은 지양되었으며, 이의 결과로 결국 한국인들은 전통음악을 즐길 수 있는 감각을 잃게 되었음

c. 21 세기로 진입하면서, 한국인의 문화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기 시작했고 어느 한 쪽을 배제하지 않고, 국악과 양악이 잘 혼합된 독특한 형태의 한국 음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하여, 국악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악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수 역시 증가하였음. 국악 교육 은 현재까지 명맥이 내려오고 있는 도제 체제와 관주도의 음악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후자의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1951 년 설립된 국립국악원을 들 수 있음. 국립국악원은

신라시대 세워진 음성서를 기반으로 하며, 따라서 1400 여 년의 역사를 가진 유구한 기관임

d. 현재까지, 공식 음악교과서 내용의 40%가 국악에 할애되어 있고, 전통음악과를 가진 대학교가 28 개교에 달하는 등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고등교육 수료자의 수는 서양 음악 전공자의 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악에 대한 관심과 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악의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있음

➢ **박상미 / Cultural Heritage and Community**

a. 유네스코 LEAP Project (문화, 유산관리 및 관광: 이해당사자의 협력모델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 지역발전을 위한 매카니즘 구축을 통한 지방차원의 문화유산 관리, 유지, 개발 모델임
- 유산보존과 관광산업의 육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관광 종사자 교육 및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 담보 차원에서의 관광산업에의 투자 모델 등임

b. 하회마을 사례연구 소개

- 하회마을의 공동체적 특성과 전통유산, 관광현황과 이의 영향, 서비스재원, 이 마을의 문화관광계획, 마을 이해당사자의 관심사항 들에 대해 설명

c. 하회마을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주민의 노령화, 전통거주양식의 변형이 어려운 데서 오는 불편, 주민을 위한 유산 교육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

d. 실천적 해결방안으로, 이해당사자 간 원활한 협의체계 구축, 포괄적인 문화유산지역 보호, 사회영향 평가 및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통합 운영, 방문객을 위한 포괄적인 시장조사 실시 등 제시

마. 한-브루나이 문화재전문가 토론

- Youssoff Agaki: 한국의 문화유산 보존, 관리 제도가 실행되는 과정과 민간 분야와의 협력 현황에 대해 질문. 특히, 민간과의 합작 프로젝트 등도 있는지에 대해 문의

=> 김광식: 한국의 경우 제도의 시행은 거의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되고 있으며, 합작 프로젝트는 현재로서는 없음

- Haji Ismail: 전통 음악이 한국의 음악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수강해야 할 과목인지에 대해 문의

=> 한명희: 현재 고교까지의 음악교육에서 전통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50% 정도이며 이것은 모든 학생이 필수 과목임

- 한명희: 브루나이에도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밀려오는 서구 문화의 요소들과 고유문화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있을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가고 있는지에 대해 문의

=> Haji Ismail: 브루나이는 그에 대한 대책을 여러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우선 종교적으로 우리의 국가 철학 (national philosophy)은 이슬람에 기반하고 있고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이슬람 이외의 종교를 포교하는 것은 불법임. 사회적 차원에서는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책에 중점.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검열을 실시하고 있음. 해외의 공연단이 브루나이에서 공연하려면 허가를 받게 되어 있음.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가철학의 3 대 근간인 말레이, 이슬람, 왕정을 지켜나가고 있음

2) 문화관련 유적 및 관광지 탐방

가. 국립브루나이박물관 방문
- 일시: 2002 년 12 월 20 일 14:30-15:00
- 장소: 반다르 세리 베가완
- 전시내용: 해저 발굴 유물 및 브루나이 왕궁 유물 등

나. 왕궁박물관(Royal Regalia) 방문
- 일시: 2002 년 12 월 20 일 15:30-16:30
- 장소: 반다르 세리 베가완
- 개관: 1992 년 30 일
- 전시내용: 브루나이 왕실의 기능과 의식, 왕실 심볼 관련 자료

다. 선왕기념 회교사원(Omar Ali Saifuddin Mosque) 방문
- 일시: 2002 년 12 월 20 일 17:00-17:30
- 장소: 반다르 세리 베가완
- 내용: 회교사원으로 전시내용은 없음, 이슬람식 예배 체험

라. 템브롱 문화관광지 탐방
- 일시: 2002 년 12 월 21 일 11:00-18:00
- 장소: 말레이시아 사라와크 주에 붙어 있는 방가르에 있음. 브루나이 국경에서 약 자동차로 1 시간 거리에 위치, 국경을 넘을

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여권 확인 후 통과. 통과 수속시간은 약 30 분 걸림

- 탐방내용: 일명 롱하우스(Long House)라고 불리는 전통가옥에서 모두 8 가구 57 명이 한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었음. 이곳에서 13 명의 남녀 중고등학생이 공연한 브루나이 전통춤 관람

  * 롱하우스는 지상에서 1 층 정도 띈 2 층 누상 가옥으로 지었는데, 이는 습기와 더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출입구는 사다리를 양쪽에 하나씩 두어 모든 사람이 오르내리도록 하였으며, 베란다가 길게 이어지고 마루는 하나로 연결되어 거실처럼 공용으로 사용하며, 마루와 연결된 내부는 칸막이를 두어 각각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함.

마. 브루나이 문화관광부 차관 만찬

- 일시: 2002 년 12 월 21 일 18:00-20:00
- 장소: 제국호텔

바. 수상 가옥촌 방문

- 일시: 2002 년 12 월 22 일 09:00-11:00
- 장소: 반다르 세리 베가완
- 특징: 유람선을 타고 강변을 약 30 여분 오르내리면서 수상가옥촌 탐방. 정부에서는 물위에 학교 등과 같은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의 어려움으로 강변 수상 가옥들을 철거하고자 하나 시내의 비싼 땅값, 혹은 더위를 피해 일부러 거주를 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 존속시키고 있다고 함. 현재 수상 가옥촌에서는 전체 인구 10%인 3 만여 명이 거주고 있음

사. 예술공 수공예품 훈련센터 방문

- 일시: 2002 년 12 월 22 일 11:00-12:00
- 장소: 반다르 세리 베가완
- 특징: 모자, 스카프, 가방, 악세사리 등 브루나이의 전통 수공예품의 전승 및 장려를 위해 전시 및 판매

➢ B 조- 베트남

1. 활동개요

- 문화유산 토론회: 세계문화유산 관리 및 일반 문화재 보존정책과 향후 교류 방안 논의
- 기관/단체 방문: 베트남역사박물관, 베트남미술박물관, 문묘(이상 하노이), 참 (Cham) 박물관(다낭)
- 세계유산 유적지 방문: 하롱 베이, 호이안 전통마을
- 기타: 리셉션, 한국대사관 만찬 등

2. 주요내용

1) 한-베트남 문화재 및 박물관 종사자 토론

가. 일시/장소: 12 월 16 일 08:30-12:00, 소피텔 플라자 하노이 호텔 2 층 하노이룸

나. 참가자: 한국대표단 8 인, 베트남 문화유산국장 외 12 인

- Mr. Dang Van Bai 국장 (Director-General of Department of Conservation and Museology, DCM), Mr. Truong Quoc Binh 부국장 (Deputy Director-General, DCM), Mr. Nguyen Quoc Hung 부국장 (Deputy Director-General, DCM), Mr. Nguyen Van Tinh 부국장 (Deputy Director-General,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Mr. Nguyen Viet Cuong(Archaelogist, DCM), Mr. Le Ngoc Dinh(staff, MCI), Ms Nguyen Van Huy 관장 (Director of Vietnam Museum of Ethnology), Ms. Nguyen Thi Tinh(호치민박물관장), Ms. Nguyen K. Dung(Vietnam Fine Arts Museum) 등

다. 한국측 발표:

-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이춘근 문화재청 기획과장)
- 새 국립중앙박물관건립프로젝트(이영훈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장)
- 한국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방향(김홍남 이대 교수)

라. 베트남측 발표:

- 베트남 박물관 현황 (Mr. Truong Quoc Binh 부국장)

- 베트남 민족학 박물관과 무형유산(Dr. Nguyen Van Huy 관장)
- 베트남 민족학 박물관과 무형유산(Dr. Nguyen Van Huy 관장)
- 세계문화유산의 보호정책(Dr. Nguyen Quoc Hung 부국장)
- 베트남미술박물관 소장품의 보존과 전시(Mr. Nguyen Xuan Tiep 베트남미술박물관 부관장)

마. 내용: 부동산 문화유산의 보호와 개발

- 베트남 유산국장은 자국내 문화재는 2001 년 7 월 개정된 문화유산보호법에 의해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연계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함.
- 현재 2,727 점의 역사문화유물이 국가유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4 점(후에 역사도시, 하롱베이, 호이안 역사마을, 미손소재 참 탑지)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밝힘.
- 유적관리 업무를 위해 문화홍보부 안에 " 유적관리/ 박물관국"을 편제해놓고 있으며 국장 1 명과 3 명의 부국장(유적, 박물관, 무형유산) 체제를 유지. 세계유산관리는 각 주정부와 시 차원에서의 특별기구를 설치해 유산관리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음.
- 베트남은 현재 123 개의 박물관을 가지고 있으나 모두 국립계열이고 예산은 주로 인건비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임. 현재 사립박물관이 없는 상태이나 유산관련법에 의해 사립박물관 설립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함.
- 베트남내의 박물관 네트워크를 구성중이며, 하롱 베이에 생태박물관 건립을 계획 중
- 열대지방에서의 유물관리는 습·온도 장치가 필요하나 소수의 박물관에만 이러한 보존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
- ICOM 베트남 위원회가 2002 년 설립되어 활동 중임.
- 베트남 관계자들은 한국의 문화재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05 년 개관 예정인 국립중앙박물관 신축건물에 대한 기능과 계획, 예산규모 등에 관심 표명. 아울러 한국문화재 정책의 총 예산규모(중앙 3,500 억원, 지방정부 7,000 억원 규모)를 질의해 옴. 하롱 베이에 건립될 생태박물관은 2,000 만불이라고 함.
- 베트남측은 개발과 보존의 문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이 주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 측과의 정책 교류를 희망해옴.
- 아울러 과거에는 유물의 해외 순회전시가 어려웠으나 유물관련법 개정이후 해외전시가 용이해졌고 앞으로 한국과의 교류협력도

가능하다는 의견 피력(특히 새 국립중앙박물관의 동남아시아 전시실의 설치에 따른 베트남 문화유산 대여전시 및 베트남 내 유적에 대한 국립중앙박물관과의 공동발굴조사도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

- 베트남측은 현재 사립박물관이 없는 관계로 이에 대한 한국 측의 관련 자료, 정책 경험의 교환이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한국 측은 사설박물관에 대한 재정지원은 없다고 밝힘). 아울러 시민사회가 적극 참가하는 문화유산 참여 프로그램이 베트남 문화재 정책의 향후 과제임을 전제하면서 한국 측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소개는 매우 유익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한국 측의 경험 전수가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 피력해 옴.

2) 베트남 역사박물관, 국립미술관, 문묘 방문

가. 일시: 12 월 16 일 14:00-17:30

나. 내용

- **베트남 역사박물관**
  - 1932 년 개관
  - 미술사, 불교사, 고고학 측면에서 한-베트남 학자간 공동 발굴, 학술연구 및 회의 개최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견해 교환
- **베트남 국립미술관**
  - 베트남 미술사에 중요한 유품 17,000 점을 전시
  - 체코, 러시아, 일본 등지에서 해외 전시를 한 적 있음. 베트남 예술의 국내소개와 미술사분야의 양국 전문가의 학술교류를 위해 베트남 미술품의 국내전시(국립중앙박물관 등)

3) 하롱 베이 (Ha Long Bay) 세계유산지역 방문 및 협의

가. 일시: 12 월 17 일 10:00-15:00

나. 참가자: Mr. Nguyen Cong Thai(Deputy Head, Management Department of the Ha Long Bay), Ms Bui Thi Thuy Hang(staff) 등

다. 내용: 유산 지역 시찰 및 보존관리계획 협의

- 보존센터에는 250 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2 명이 환경 전문가이고 조만간 1 명을 보충할 계획이라고 함. 동 센터는 시 관할이 아닌 도 관할 (Quang Ninh Province) 산하이며 연구부서,

행정부서, 재정부서, 동굴관리팀, 해난구조팀, 관광안내팀 등 모두 8 개 부서로 구성되어 체계적 관리체도를 운영하고 있었음

- 환경보존, 자연경관의 지속화가 최대 관리목표이며 외부인의 거주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매 100 만명의 관광객중 50%가 외국인이며 외국관광객은 주로 동절기를 이용하고 있음. 체계적인 관광진흥을 위해 동 보존센터는 2 척의 대형 유람선과 8 척의 유람선을 별도로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수개 언어별로 30 명의 가이드를 고용하고 있었음
- 2000 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된 하롱 베이 세계유산지역은 그 지역 내 5 개의 수상어촌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생계유지로 어업에 종사하므로 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해 적극 협조해 오고 있음. 매주 한 차례, 오물수거 전용배가 순회하고 있으며 기초교육을 위해 boat school 이 운영되고 있었음
- 완충지역 외곽에 현재 일본 등의 자본이 들어와 호텔을 신축 중에 있는데 4 급 호텔 2 개, 중·하급 호텔은 200 개 까지 허용할 계획이고, 인근에 생태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다고 함
-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 지역관리센터 안내원들은 세계유산 로고 견장을 부착하고 있었음

4) 유네스코 세계유산 호이안 (Hoi An) 역사마을 방문 및 협의

가. 일시: 12 월 18 일 10:00-16:00

나. 접촉인사: Mr. Pham Ngoc Gioi (Vice Chairman, Hoian People's Committee), Mr. Tran Anh (Director, Hoian Center for Monuments Management & Preservation) 등

다. 내용

- **유산관리센터 방문**
  - ♦ 17 세기 동지나해의 해상 무역중계지로 일본, 중국인들이 베트남인과 함께 상권을 형성하며 발달된 혼합형 주거부락. 17 세기 말에는 6,000 명 이상의 중국인, 1,000 명의 일본인이 거주한 바 있음. 사원, 고택, 묘당 등 1,000 여 점 이상의 유적이 밀집되어 있고 강가를 따라 형성된 마을뿐 아니라 강 자체도 보존지역으로 묶어 자연환경에 대한 절대 보존정책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음

- 1992 년 설립된 호이안 유적관리보존센터는 현재 호이안 시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었으며 40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이중 2 명이 건축전문가임
- 호이안 시청은 세계유산지역의 관광진흥정책을 중장기로 추진할 예정인데 2005 년에는 50 만명, 2010 년에는 100 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음. 이에 대해 한국 측 대표단은 한국의 예를 들면서 과도한 관광객 유치는 마을의 정체성 파괴, 자연환경의 파괴로 나아갈 공산이 크다는 조언을 했음. 아울러 다낭시에서 호이안시로 연결되는 왕복 6 차선 도로(30km)를 전부 연결시키지 말 것을 권고함. 현재 호이안시 인구는 8 만에 불과한 상태
- 유적관리보존센터 소장과 시 인민위원회 부의장은 호이안 전통마을의 보호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1) 사회보장제도 2) 관광회사의 문화재복원 개발사업의 참여 유도 3)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지적하면서 보존지역의 가옥중 82%가 개인소유이며, 이들 주민들이 최근 마을의 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자각하기 시작해서 시정부와 주민간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라고 발언함
- 문화재 보존과학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상태이며 현재 일본의 쇼와 대학교에서 학술협력을 하고 있다고 함. 센터 소장은 특별히 목조건축물의 충해 방지기술에 대해 전수받고 싶다고 했음.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10 여년간 일본, 중국과 기술협력을 해, 상당부분 그들 국가의 보존 기술을 습득한 상태이나, 한국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한다고 했음
- 일본은 동 마을이 일본인들의 거주지였음을 감안하여, 유네스코 협회연맹, 해외 개발기금 등을 이용하여 보존사업을 지원했으며, 보존 완료된 건물 외곽에 지원사실을 명기한 판넬을 부착시켰음

- **호이안 유물 복원 정보센터 (Restoration Information Centre)**
  - 호이안 보존지역 중심지에 위치한 동 센터는 개인 가옥주와 보존센터를 연결하는 정보센터로 기능하고 있으며 주로 파괴, 손상된 가옥을 수리할 때, 민원을 처리하는 사무실로 기능
  - 작년 20 건을 신청받아 가옥을 수선해 주었으며 소요 경비 중 80%는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개인이 부담하나 시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함. 신청서도 보존지역의 등급에 따라 3 색으로 나눠져 있으며 사무실에는 기와, 벽돌, 목재 구조물, 기둥, 창문 등 전통기법을 이용한 여러 유형의 견본들이 전시되어 있었음

5) 기타

가. 주 베트남 대사(대사 백낙환) 주최 만찬 참가(12 월 16 일 17:00)

나. 기념품 및 자료 증정:

- 무령왕릉 출토 금제관식 판넬 및 "직지심체요절" 영인본(베트남 문화부 대표)
- 국립중앙박물관 영문도록, 새 박물관 건립 안내 책자, 국립중앙박물관 연보(베트남 문화부)
- 한국세계문화유산 영문 안내책자 및 브로셔, CD-Rom (베트남 문화부, 하롱베이 유산센터, 호이안 유산센터 대표)
- 전통매듭(베트남 문화부 부국장 3 인)
- 명함 케이스 및 전통 인형(베트남 관계자 및 박물관 직원, 안내원 등)

다. 베트남 관계자들은 10-20 년 이상의 현장실무 및 국제관계 업무에 종사한 자들로 일본, 프랑스 등의 학자들과 교분관계가 많음. 부국장 급 이상들은 대부분 러시아, 폴란드 등지에서 유학한 자들임. 영어는 중간수준이었으며 문화부 국제협력 부국장은 최근 영국 시티대학교에서 예술행정 석사를 수료하여 영어구사능력이 제일 뛰어남.

라. Mr. Truong Quoc Binh 부국장 및 유산관리국 직원 일부는 과거 유네스코 및 세계거석문화협회 관련 회의에 참가한 적이 있음. 대부분 한국과의 교류를 환영하고 있으며 친한파들임.

➢ B 조- 캄보디아

1. 활동개요

- 문화유산 토론회: 보존현황 및 교류방안 논의
- 기관/단체 방문: 국립박물관, 왕궁, Toul Sleng 박물관
- 세계유산 유적지 방문: 앙코르 와트
- 기타: 리셉션, 한국대사관 만찬 등

2. 주요내용

1) 한-캄보디아 문화재 및 박물관 종사자 토론

가. 일시/장소: 12 월 21 일 9:00-12:00,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회의실

나. 참가자: 한국대표단 8 인,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차관 외 15 인

- Mr. Chuch Phoeurn(Under Secretary of State), Mr. Ouk Lay(Director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and ASEAN Affairs), Mr. Tuy Koeun(Rector of the Royal University of Fine Arts), Mr. Khun Samen(Director of National Museum of Cambodia), Mr. Hab Touch(Deputy Director of National Museum of Cambodia), Mr. Hang Soth(Director General, Department of Cultural Techniques, Ministry of Culture and Fine Arts), Mr. So Chenda(Vice-Dean of Faculty of Visual Arts, RUFA), Mr. Keo Kann Virak(Deputy Director of Public Relations for Culture) 등

다. 한국측 발표: 한국의 석조문화재 보존처리 (서만철 공주대 교수)

라. 캄보디아측 발표: Mr. Chuch Phoeurn 캄보디아 차관

마. 내용: 문화유산 보호정책의 방향과 주요 유산소개

- 캄보디아 문화차관은 국가 문화정책의 기본이념 및 목표를 설명하고 주요 유적지에 대한 보존계획을 소개. 한국측에서 발표한 석조문화재 보존기술(무녕왕릉)에 대해 많은 관심을 피력하고 향후 문화재 분야에서 한국의 선진 기술과 전문지식의 전수 및 지원이 있기를 희망함.
  - ♦ Ideology: for living in harmony with each other
    Ethics for all: compassion, tolerance, equity

State level: unity, prosperity, friendship, kindness

- ♦ 문화정책의 4 대 기둥: 평화문화의 구축, 민주주의 기여, 문화와 발전 조화, 보존과 개발의 균형

* 바욘사원, 타프롬사원 등의 건축이념, Jayavarma 7 세 국왕의 통치이념과 일치

- 보존현황
  - ♦ 1999 년부터 World Bank 의 지원으로 박물관 설립을 진행 중이고 22 개의 모든 현에 국립박물관을 설치할 계획임
  - ♦ Bantay Chhmar(Thmar Pourk 에 위치): 2,000 헥타르 면적에 51 개 유적, 3 개 보호지역으로 중첩 보호
  - ♦ Prusat Prah Vihara: 1962 년 국제사법재판소의 심의로 태국과의 소유권 분쟁 승소. 해발 26m 에 위치. 유적 입구에서 본전까지 거리 803.13m 에 달함. 과거 앙코르와트와 연결되는 royal route 시발점
  - ♦ Phum Moul, Krek 등 3 개 지역: 총 28 개 환형 촌락이 있음. 청동기시대 이전의 촌락으로 판단. 독일기술진의 참여. 세계유산 신청 준비. 매 5 년에 1 건씩 발굴 완료할 계획임
  - ♦ 세계유산지역내의 사업은 ICC 의 산하이며 그 이외의 지역은 문화예술부와 별도 협정 하에 추진됨. 후자의 업무로 JAICA, 와세다 대학 등이 참보디아 문화예술부와 공동작업 중임
  - ♦ 문화재 분야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유산 재산권의 보호 등이 향후 과제
  - ♦ 현재 문화재 보전분야에는 총 1,300 여명의 인력이 참여하고 있음
  - ♦ 문화부예산 대부분 인건비로 지불되고 극히 일부의 예산만이 기술분야에 지원되고 있음. 한 마디로 내부적 여건은 한계에 달해 있는 것이 사실임. 기술 및 재원지원이 소망스러움.
  - ♦ 새 국립중앙박물관에 설치되는 동남아시아실에 참보디아 문화재의 대여전시 가능성 타진에 대하여, 차관이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의사 표명

2) 유네스코 참보디아 사무소 관계자와의 실무회의

가. 일시/장소: 12 월 21 일 8:30-9:00, 참보디아 문화예술부 차관실

나. 참가자: 허권 부장, Mr. Teruo Jinnai(Cultural Programme Specialist), Ms Julia Chenot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컨설턴트/프랑스 30 대 초반 여성, 연계약)

다. 내용

- 유네스코 관계자는 동 사무국의 기능과 사업을 소개한 후, 문화재분야에서의 국제협력사업에 한국 측의 참여를 희망해옴. 이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캄보디아 전문가의 훈련 및 교육, 전문화 사업에 많은 배려를 하겠고 아울러 2003 년 5 월경 한국에서 개최될 유네스코 박물관 아태지역 웍샵에 캄보디아 관계자를 초청하겠다고 약속했음
- 최근 국가별로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를 점차 폐쇄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특별배려로 캄보디아는 계속 유지될 것이며, 교육분야 사업이 활발하다고 함
- 문화재 보존사업은 프랑스. 일본, 독일이 주요 국가로 참가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스위스, 인도가 참여하고 있음. 국제기구로 WMF (world monument fund)가 참가중임
- 무형유산 사업에 강화될 예정이라고 함
- 앙코르 와트 유적사업은 국제조정위원회(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Angkor Wat)를 통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동위원회 창설 10 주년에 즈음하여 제 10 회 정기회의를 파리에서 개최할 계획. 의장은 프랑스, 일본이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고 유네스코는 실무조정을 하고 있음
- 앙코르 유적은 1 일 20 불, 2 일 이상 40 불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 캄보디아 고위층의 조정으로 총수입의 50%는 정부에, 나머지 50%는 개인 용역회사가 받고 있음. 정부에 들어오는 50%의 입장수입 중, 85%는 "압사라"로, 10%는 관광부, 5%는 문화예술부로 배정된다고 함. 작년 관광객은 20 만 명이었고 압사라로 분배된 금액은 300 만 불이었음. 아울러 입장수입이 매년 3 천만불이상이 될 경우, 30:70 의 1 비율로 정부 측에 배분되는 금액을 증액시키기로 약속되어 있다함. 현 약정에 대해 사설 관리공단의 부당성, 수수료 과다 책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등 제도개혁 요청을 ICC 에서 하고 있음
- 최근 태국에 반출되었다가 재반환된 예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캄보디아 정부가 조만간 UNIDROIT 협약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함. (최근 일본도 1970 년 문화재반환협약을 조인했다고 함.)

- 작년 10 월 참보디아 유적 중, Prasat Prah Vihara 를 차기 세계유산 후보지로 신청했다고 함. 단, 이 유적은 참보디아에 위치해 있지만 입구가 태국을 통하게 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함. 현재 태국은 오염을 우려해 입구를 막고 있다고 함

라. 요청사항: 한국의 인적 물적 지원 및 참여 요청. 특히 인간문화재 보호제도, ICT 활용, 인적자원 개발사업, 문화재보전분야

3) 참보디아 국립박물관, 왕궁 방문

가. 일시: 12 월 21 일 14:30-16:30

나. 내용

- 국립박물관 2001 년 방문객은 41,712 명이고 4 개의 건물에 유품 전시. 총 켈렉션은 20,000 점이며 이중 14%만이 전시되고 있음
- 총 80 명의 직원이 4 개 전문부서 및 2 개 일반 총무부서 (conservation, exhibition, registration, planning, administration, personnel)에 근무하며 관장 1 인, 부관장 3 인. 입장료는 없음
- 전시품은 선사시대, Funan 시대 (철기시대), pre-Angkor 시대 (6-9 세기), Angkor 시대 (9-13 세기), post-Angkor 시대 (14 세기-)로 구성하여 전시
- 참보디아 내전 시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었던 "시바-우마상"중 우마의 두상이 절단되어 없어졌음. 이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 및 문화재보호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손상되기 전의 원형과 파괴된 상태의 사진을 전시품 옆에 함께 부착하고 있는 것이 특징
- 내전 이전에는 전국에 박물관이 많이 있었으나 지금은 폐관, 파괴된 것이 많아 수도에 국립박물관, 지방에 5 개 도박물관 등 총 6 개의 박물관이 있음. 중앙 국립박물관은 지도 감독의 기능을 부여받고 있음
-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련법이 없는 상태

다. 의견

- 동박물관 직원은 박물관의 제도운영 향상에 관심 있었음. 한국대표단에 박물관 법, 제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음
- 재정, 예산, 지역사회와의 관계, 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주제에 대한 논의 및 협력이 필요함

4) 앙코르와트 세계문화유산 현지답사

가. 일시: 12 월 20 일 07:00-16:30(시엠 립으로 항공편 이동)

나. 내용

- 유네스코 위기유산리스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집중관리를 받고 있었음
- Buffer Zone 내 대규모 관광진흥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며, 국립박물관의 건축도 진행 중이었는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지하수의 고갈 및 이로 인한 기반 침강이 우려되어 현재 지하수 수로영향조사가 1 년간 진행되고 있었음
- 앙코르 지역의 완벽한 보존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보전계획 수립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호텔, 공공시설, 위락시설 등의 집중건립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변화, 오염, 지하수 고갈
  - 타 지역 인구의 유입 및 상업화 현상
  - 과도한 관광객 중심의 개발정책
  - 케이팝 수목의 지속성장으로 인한 석재, 전탑의 균열, 파괴현상
  - 전문인력 및 장비의 부족, 예산의 부족
  - 캄보디아 정부의 내부 통제 및 조정능력의 미비 등

다. 일본의 참여

- 일본은 외무성 중심으로 일본 특별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10 여년간 지속하고 있으며, 유네스코가 운영하고 있는 ICC 에 프랑스와 함께 공동의장국으로 활동 중임
- Sophia 대학(上智大學) 아시아문화연구소 앙코르조사실 (조사단장: 石澤良昭 교수)에서 1980 년부터 앙코르유적에 대한 조사 및 복원 그리고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996 년 캄보디아 왕립예술대학(RUFA)의 졸업생 중 10 명을 선발하여 유적보존담당관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를 시작. 이는 현지에 Sophia Training and Cultural Center 를 세워 여기에서 3 년간 고고학 및 건축학에 대한 연수를 받은 뒤 일본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프로젝트로, 현재 8 명이 일본에 유학중이라고 함
- 일본과 압사라 기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안내문이 3-4 곳에 설치되어 이곳을 찾는 외국인에게 자국홍보를 병행하고 있음

라. 독일의 참여

- GACP (German Apsara Conservation Project at Angkor Wat)
  - 구내에 별도(북측)의 전시 홍보관 설치 및 각종 자료의 유가 판매
  - 프로젝트 담당: Hans Leisen 교수 (Univ. of Applied Sciences Cologne)
  - 1992 년부터 시작하여 2000 년까지 180 만 DM 투여. 쾰른 대학교 전문학자, 과학자의 참여. 회랑의 부조정비작업, 고고학/ 건축학/ 미술사분야의 훈련과정 설치 등
  - GACP 는 외무성에 의해 총괄되고 있으며 앙코르 와트 복원사업 이외에 수 개의 주요 유적지 조사, 보존사업에도 참가하고 있었음

5) 기타

가. 주 캄보디아 대사관(이원형 대사) 만찬 참가(12 월 21 일 19:00)

나. 기념품 및 자료증정:

- 무녕왕릉 출토 금관 판넬, 국립중앙박물관 도록(차관)
- 전통매듭(문화부 국제협력국장 및 COCI 담당자)
- 국립중앙박물관 영문도록, 명품 CD-Rom, 연보, 새 박물관 건립 안내책자(문화부 및 국립박물관)
- 한국세계문화유산 도록 및 팜프렛(문화부)
- 전통인형, 명함케이스(국립박물관장, 관계자, 안내자 등)

다. 차관은 30 여 년 동안 문화재 분야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임. ICCROM 을 1972 년경 수료. 국제적 활동과 경험이 다양함. 실질적인 행정과 실무는 차관에 집중되어 있음. (장관은 캄보디아 국왕 딸로 실무에 간여하지 않고 있었음.) 아울러 차관은 2001 년 한-아세안 문화인 교류사업(영화분야)에 참가한 인물로 한국의 높은 문화수준을 경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 측과 친밀한 교우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고 있음

라. 기타 캄보디아 대표단의 영어수준은 중간급

III. 평가 및 제안

1. 평가

가. 아세안 4 개국(말레이지아, 브루나이, 베트남, 캄보디아)의 문화유산과 관련기관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으며, 관련학자 및 전문가 등과의 만남을 통해 향후 상호교류에 대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음

나.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역문화유산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낌. 적어도 아시아 전체 시각에서 문화를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보편성을 추구해 나아가야 할 것임

- 한국과 아세안국가 문화재 분야 전문가 교류 확대
- 이들 국가의 유형 및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
-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문화재 전문가 상호 교류 및 협력 토대 마련
- 이들 지역에 한국 문화상품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 전략 필요성 인식

2. 성과

가. 향후 문화유산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인적 정보를 획득한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 새 국립중앙박물관 개관이후 베트남과 캄보디아 문화유산의 국내 대여전시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의사 확인

나. 각 방문국은 한국의 무형문화재의 보존, 전승 실태 및 전통문화의 육성방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이번 전문가 교류를 계기로 양국의 문화이해 증진 및 교류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음.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인적교류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함. 특히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에 있어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에 보존 방법에 대해 실제 한국을 방문하여 보고 배울 것을 주문함

다. 대표단 구성에 있어,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 협력방안의 원활한 논의와 실천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라. 한국의 무형문화재의 보존, 전승 현황 및 정책을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영문으로 된 자료나 비디오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필요성 제기

마.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지금 한류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음을 확인, 특히,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드라마 중 '겨울연가'는, (현지에서는 'Winter Sonata'로 불리고 있음) 일반인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곳의 젊은이와 중장년 층들에게 시청되어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 차원을 넘어 광적이라 할 만큼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이를 단순한 드라마의 홍보가 아닌 이를 계기로 우리 문화와 상품이 이곳에 수출 될 수 있도록 문화 교류 및 협력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3. 협의 및 제안 사업

가. 네트웍 구축: ICOM, ICOMOS, 보존과학 분야의 인적협력망의 구축

나. 인적교류

- 관계자 교환방문
- 학교 교류: 정보, 교수·학생 교환프로그램
- 기술자 초청훈련프로그램 지원
- 국립박물관 상호간의 교류추진
- 보존과학 분야 이외에 한국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IT 분야,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분야를 통한 문화재보호 사업 참여
- 국내 NGO, 시민사회의 참여 및 기금의 지원(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등)

다. 공동조사연구

- A조의 연구
  - 2003년도 아세안 문화유산 전문가의 방한 초청
  - 2004년 6월, 강릉에서 개최 예정인 "강릉국제관광민속제"에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의 전통공연팀 참가 요청 (아세안국의 공연단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해당국 협조 약속
  - 아세안국가 대상 인적교류 정례화 및 관계기관 네트웍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향후 한-아세안 간 유·무형문화재 보존관련 정책교류를 위한 사업 실시 요망

- B 조의 경우
  - ♦ 베트남 측의 관련기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이 공동으로 베트남 내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등을 추진(참고로, 현재 몽골국립역사박물관과 유사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음)
  - ♦ 캄보디아 고고발굴계획 공동참여

라. 정보교환 및 지원: 국내 중고장비의 아세안 지원

마. 교환전시 등 (특히 용산에 신축 중인 새 국립중앙박물관에 신설되는 동남아시아 전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향후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문화유산을 대여하는 방안을 추진)

바. 협력기금의 확보
- special team 구성: 다학문적 타당성 조사
- 양자간, 다자간 사업추진(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국제조정위원회 참여)
- 기금 사용의 모니터링 방안 마련